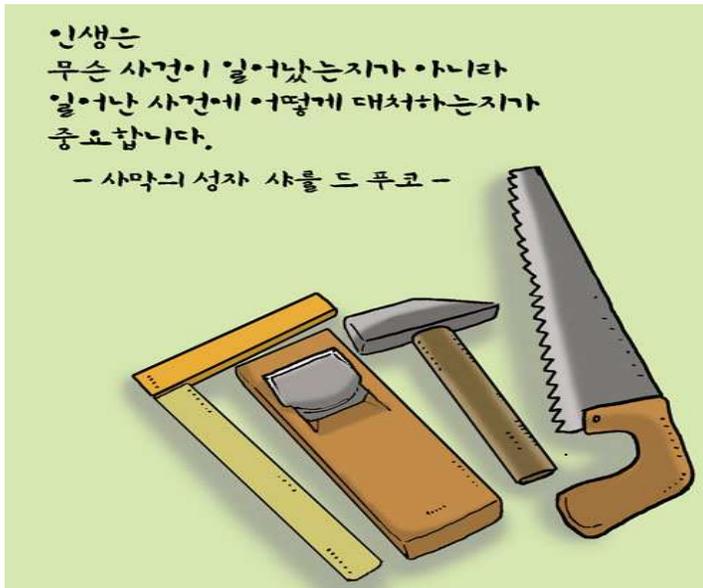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몬(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제 1독서]** 사도 10,25-26,34-35,44-48  
**[화답송]** 시편 98(97),1,2-3-4,3-4(◎ 2 참조)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찬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 2독서]** 1요한 4,7-10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요한 15,9-17

성가	8시 미사	입당 134	봉헌 210	성체 500 502	파견 245
	11시 미사	입당 134	봉헌 210	성체 500 502	파견 245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부활 제6주일(5월 10일)		주님승천대축일(5월 17일)		성령강림대축일(5월 24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애리스텔라	2 구역 : 조선덕레지나	정일환프란치스코	3 구역 : 변성우안토니오	채성일토마스	4 구역
제 1 독서	정일환프란치스코	2 구역 : 심태규미카엘	채성일토마스	3 구역 : 유홍식라파엘	강신희요한	4 구역
제 2 독서	정영희글라라	2 구역 : 심승화헬레나	정애리스텔라	3 구역 : 이혜경레아	김영선안젤라	4 구역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에 보면 글을 쓰기 어려운 이유 한 가지가 나온다. 그 이유는 잘 쓰려는 욕심 때문이다. 어떻게 쓰느냐와 무엇을 쓰느냐의 차이이다.

어떻게 쓰느냐,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멋있게, 있어 보이게 쓸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것이 부질없는 욕심을 만든다. 그러나 무엇을 쓰느냐에 대한 고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글의 중심은 내용이다.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 어떻게 하면 명문을 쓸까하는 고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이다. 그 무엇이 신앙생활의 내용이며 예수님의 초대인 사랑의 삶이다. 사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 12-13)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목자의 삶을 사셨다. 착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산다는 것은 늘 걱정하고 끌어주며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돌봐준다는 말이다.

운동 내어주는 삶, 베푸는 삶, 봉사의 삶이다. 결국 우리를 벗이라 부르시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셨다.

그 사랑은 새로운 계명이며 반드시 신앙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이다. 예외 없이 예수님을 닮고자하는 모든 이는 자신을 잊고 오직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위대한 사랑의 덕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초대에 충실히 응답해야 한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삶으로 밝혀야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 35)

5월은 소중한 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은총의 시간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자존심을 내세우면 걸치레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2코린 4, 5)라고 고백한다.

사도 바오로가 감동을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종까지 되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야 한다.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자주 자존심을 내세우면 온전히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

사랑이 선을 이루고 위로가 되고 화해를 이루며 희망이 되도록 신앙인은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완전히 비우고 조건 없이 내주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닮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때부터 남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인천주보 “오늘의 말씀” 중에서

생명의 말씀

부모의 심정으로

올망졸망한 자식 여럿을 남겨둔 채 세상을 하직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모쪼록 어린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사람 노릇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제자들과 이별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부모는 자식을 애지중지하면서 자식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의 보살핌은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될 갖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부모의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요한 15,9)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장차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난관을 만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승이 베풀어주신 큰 사랑을 자주 되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누리는 기쁨은 부모의 기쁨이고, 그들이 겪는 고통은 부모의 고통입니다. 부모는 어떻게든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 12)고 당부하십니다.

그분은 약하고 허물 많은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구라고 부르면서 극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이 제자들 마음에 씨로 뿌려져 그들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스승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부족함을 견뎌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곁으로 가신 다음에도 그분의 제자 사랑은 계속됩니다.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포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견고한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게 도와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해서 그들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는 관습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환시를 통해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도 하느님의 자녀들임을 가르치셨습니다.(사도 10,9-16 참조)

그 직후에 베드로는 이방인 코르넬리우스의 초청을 받아 그 가족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의 충실한 제자로 성장해 나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극진히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제자가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외아들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닮고자 노력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간에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손희송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말씀의 향기

인내가 준 지혜, 그리고 다가오는 때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자동차로 이동하다 보면 창밖의 모습에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살을 찢어내고 잎을 낸 나무들부터 오랜 시간 변화의 과정을 거쳐 세상으로 나오는 풀벌레까지, 고통을 이겨낸 뒤에도 때를 잊지 않고 반복되는 자연의 풍경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 피부로 와 닿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계획하셨을 거라는 생각에 창밖을 보며 한참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국립발레단에서 수석발레리나로 10여 년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때, 어느 날 갑자기 족저근막염이라는 진단이 저에게 내려졌습니다. 발바닥 밑에 있는 두꺼운 근육인 족저근에 이상이 생긴 것은 발레리나로 한참을 달리던 저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진단이었습니다.

유명 대학병원에서 더는 토슈즈를 신을 수 없다고 진단을 내렸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희망을 안고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생 끝에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이후 약 10개월 동안 하루 12시간 씩 운동선수들과 함께 재활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재활 선생님의 토슈즈를 신어보라는 말에 아무 통증 없이 다시 발레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처음 발레를 시작했던 때보다 더 기뻐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결국 족저근막염을 이겨낸 뒤, 국립발레단에 수석 발레리나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무대에 오르는 기쁨을 관객과 소중히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이었을까요. 부상 후 있었던 무대를 통해 발레계의 아카데미 상이라고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 에서 최고 여성 무용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레를 그만두는 것을 고민했던 제가 최고의 상을 받는 영예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를 재활훈련을 견뎌낸, 그 인내가 준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신부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위해 기다리신 시간이 30년이라고요. 그만큼의 시간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소중한 때를 위해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에겐 족저근막염 이후 좌절감에 빠졌던 그 때였겠지요. 만약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발레를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물론 저는 그때를 아는 지혜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했던 것이 아마 작은 지혜가 아니었을까요.

저에겐 사형선고와 같았던 그 시절을 떠올려보며, 자기의 때를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는 나무와 동물, 그리고 넓은 자연처럼, 하느님께서 준비해주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김주원 힐데가르트  
성신여자대학교 무용예술학과 발레전공 교수



이 세상에 말다운 말은  
오로지 '말씀' 뿐입니다.  
글 이기락 신부  
그림 구민정 엘리사벳

성경산책

믿음을 고백한 이방인 고르넬리우스

카이사리아에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입니다. 지중해변에 있는 항구도시였던 카이사리아는 헤로데왕이 로마황제를 위해 만든 도시이고 이후에는 로마총독의 숙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로마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코르넬리우스는 로마의 백인 대장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따라 살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코르넬리우스의 만남을 성경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합니다. 코르넬리우스가 환시 중에 하느님의 천사를 만나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10,1-8

베드로가 어느 날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릇 안에는 온갖 네발 달린 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길짐승, 날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러운 것이나 날것을 먹으면 안 되는 율법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체험한 장면을 살펴볼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10,9-16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시가 무슨 뜻일까 하며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전갈을 받고 온 코르넬리우스의 믿음직한 부하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코르넬리우스의 집에 갔고 큰

환대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느님 나라에 간다고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끝내고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10,17-48

이 사건으로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사이에 놓여있던 높은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코르넬리우스의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차별이 없어지고, 하느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허영엽신부  
서울대학교

♥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 )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 )하며  
( )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사도10,34-35)

“너희는 ( )을 억압 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 )이었다.” (탈출22,20)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라이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5월 10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신마태오(현규)	신유스티나
	연	이프란치스코(천규)	육아오스딩
	연	이프란치스코(천규)	김케네스
	연	최비비안나(정숙)	최스테파노(상철)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생	이아네스(명란)	은총의어머니Pr.
	생	이막달레나(선희)	은총의어머니Pr.
	생	임루시아(윤택)	구안나(혜순)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가족
	생	김테오도라(나영)	김안젤라(영선)
	생	정분다(정식)	유마리아
	생	이야고보(재우)생일	이카타리나
	생	박데레사(명선)건강	김베드로(광석)가족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91	194	18	303
헌 금	\$616	\$1,366	\$11	\$1,993

< 교무금 > \$5930

정병구(5-6) 정지문(5-6) 정지오(5-6) 강수영(4)  
 정영언(3-5) 임윤택(5) 이재우(3-5) 전숙희(5)  
 김순이(5) 남금지(5) 김관수(3-4) 강성순(3-4)  
 장진혁(1-3) 소명환(5-6) 조진석(1-6) 강신호(3-4)  
 전문자(5) 유홍식(3-5) 이건용(5) 김옥녀(5)  
 이순열(5-6) 황문환(5) 정진희(5) 김영희(5)  
 김정복(5) 박일신(4) 이명란(5) 김미라(1-4)  
 김광석(5) 김용식(3-4) 허동원(5) 천종욱(5)

< 성소후원금 > \$150

정병구(5-6) 임윤택(5) 김순이(5) 소명환(5-6)  
 박일신(4) 이명란(5) 김용식(3-4)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800

김순이, 한서연, 김관수, 이해경

~~~~ 오늘 간식은 김세록 제랄드/김관수 요한보스코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

- 공 지 사 양 -

◆ 본당신부님께서 5월 11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북미주사제연수 관계로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신부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모의 밤

5월 30일(토) 저녁 8시

\* 아침미사 없습니다.

◆ 야외미사

6월 7일 11시 Joaquin Miller Park

\* 8시 미사 없습니다.

◆ 2차 헌금 안내

5월 17일(다음주) : Catholic Charities

◆ 모임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매주화요일/문의 510-847-3014

\* 대건회 : 5월 17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오클랜드 본당 청소년기금마련 걷기대회 준비모임

5월 10일(오늘) 교중미사 후 202호실

◆ 대건 장학생 선발

지원서 : 친교실이나 사무실

\* 성당 웹사이트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육승주 아오스딩 510-909-6626

◆ 서중부 여성 제10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일시 : 6월 25일(목) - 6월 28일(일)

대상 : 견진성사를 받으신 모든 여성

비용 : \$250

신청 및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북가주 한인성당 친선 골프대회

일시 : 5월 16일(토) 12시까지 집결

장소 : Wildhorse Golf Club(2323 Rockwell Dr. Davis)

회비 : \$180(부부) \$100(개인)

문의 : 김진홍 안토니오 916-605-6974

**5월 반모임 안내**

| 구역 | 반       | 시간          | 장소        |
|----|---------|-------------|-----------|
| 1  | 오클랜드    | 5월16일(토) 6시 | 교육관106호실  |
|    | 실버      | 5월30일(토) 2시 | 파운더스룸     |
|    | 샌리엔드로 W | 5월16일(토) 6시 | 이병영요셉덕    |
| 3  | 알버니 YB  | 5월17일(일) 1시 | 최윤기유스티노덕  |
| 4  | 라스모어    | 5월23일(토) 5시 | 신재극스테파노덕  |
|    | 월넛크릭    | 5월15일(금) 6시 | 김영준사비노덕   |
|    | 플레즌힐    | 5월23일(토) 6시 | 김관수요한보스코덕 |
|    | 콩코드반    | 5월23일(토)7시반 | 김민규바오로덕   |

◆ 제 21차 북가주 성령대회

주제 :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에제 36, 26)

강사 : 이미숙 아가다 수녀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 웃음 치료사)

일시 : 6월 6일(토) 오전 8:30 - 오후 8:30

장소 : 산호세 성당

참가비 : \$25(pay to the order of KSCNC)

\* 점심/저녁 제공, 무료 베이비시팅 제공

문의 : 염명련 파트리샤 503-369-2945

◆ 다음 주 5월 17일 **홍보주일**부터 후보가 4페이지로 간략하게 줄여서 나가게 됩니다.

◆ 다음 주 5월 17일은 은행 사정으로 인해 은행 문을 열지 않습니다.

◆ 마더스데이 코사지 봉사를 해주신 전례성가대와 제대꽃 봉사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마티아(5/14) : 이상우, 부흥신

**주일학교 소식**

- 5월 17일 : 주일학교 방학  
(영어미사를 집전해 주시던 Fr. Arjen 과 Br. Pius 가 이 날을 기해 본당을 떠나십니다.)

**안국학교 소식**

- 5월 16일 : 종강식 및 학습발표회  
- 5월 17일 : 미사 중 노래발표  
- 5월 30일 : 소풍(Six Flags)